

2026년 7월, 출범 확정 제물포구·영종구 서구·검단구		<h1>보도자료</h1>		<i>이제는 인천입니다</i> 2025 APEC INCHEON	
		배포일자	2024년 5월 21일(화) 총 27매		
담당 부서	토지정보과	담당자	• 토지행정팀장 • 담당자	서정하 ☎440-4561 고경민 ☎440-4562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도시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 주택 매매가, 5개월 연속 하락 폭 축소
- 매매가 하락 폭, 지난해 12월 - 0.35%에서 올해 4월 - 0.05%로 -
- 전세는 4월 전국 최대 상승 폭 기록 -

인천시 부동산 매매가격의 하락 폭이 5개월 연속 축소되는 반면, 전세가는 4월에도 전국에서 가장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.

인천광역시의 ‘2024년 4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’에 따르면 인천 지역 매매가격 변동률이 3월 -0.06%에서 4월 -0.05%로 하락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.

지역별로 살펴보면 연수(0.07%)·서구(0.06%)·남동(0.04%)·계양(0.03%)·동구(0.03%)는 상승했으며, 부평(-0.37%)·중구(-0.11%)·미추홀구(-0.05%)는 하락했다.

이와 함께 전세가격 변동률은 0.30%로 4월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으며, 연수구 0.69%, 남동구 0.47%, 부평·계양구 0.37%, 서구 0.17%, 동구 0.12%, 미추홀구 0.11%, 중구 -0.22% 순으로 상승세

가 지속되고 있다.

지가변동률은 2월 0.140%에서 3월 0.156%로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, 연수구 0.280%와 서구 0.161%는 인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.

또한, 주택매매 거래량은 2월 2,792건에서 3월 3,497건으로 25.3% 증가했으며, 구별 거래량은 서구 723건, 남동구 565건, 부평구 562건, 연수구 487건, 미추홀구 434건, 계양구 381건, 중구 187건, 동구 76건이다.

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“한국부동산원에서 공개한 4월 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, 매매는 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트 확대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(GTX) D·E노선 호재 등으로 상승하며 하락 폭이 축소됐고, 전세는 인구 증가 및 교통환경이 양호한 역세권 대규모 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세가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” 고 말했다.

<별첨> 2024년 4월 인천시 부동산시장 동향